

『이중언어학』 제31호(2006.06.30). 二重言語學會

한국어 학습 사전의 연구 동향 분석

박 수연

Abstract

Park Sooyeon. 2006. 06. 30. An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on Korean Learner's Dictionary. *Bilingual Research* 31, 35-53. Korean Learner's Dictionary was published this year, but a review of research on Korean Learner's Dictionary has not been executed. This study will analyse previous research on Korean Learner's Dictionary with eighteen studies and present the its characteristics, problems, cause and solution. The research was analysed based on five variables: used language, type, making type, research method, macrostructure/microstructure. (Yonsei University)

[Key words] 한국어 학습 사전(Korean learner's dictionary), 연구동향 분석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사용 언어(used language), 종류
(type), 편찬 방식(making type), 연구방법(research method), 거
시구조/미시구조(macrostructure/microstructure)

1. 서론

최근 국내외에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새로운 교재, 교육 자료, 교수 방법 등의 개발을 위한 수고도 한창이다. 학습 사전의 개발도 이러한 노력 중에 하나이다. 그 결실로 2006년 1월 5년간의 편찬 기간을 거친『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¹⁾이 출간되었다.

이 사전은 중급 이상의 실력이 요구되는 국내 최초의 단일어 통합 사전이다. 이를 기점으로 이제까지 학습 사전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볼 계기가 마련되었다. 학습 사전에 대한 연구 영역은 강승혜(2003:23)에서도 10개의 주제별 분류 중에 하나로 자라 잡을 만큼 학습 사전 연구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연구 자료 목록을 기초로 하여 연구의 하위 주제를 세분화하고, 해당 연구 논문을 살펴본 후, 연구 전반에 관한 특징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연구는 다른 연구와 대비되는 가장 큰 특징을 보여 주는 분류 기준 밑에서 한번만 그 내용을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어 학습 사전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 학습 사전의 연구 영역은 사용 언어에 따라, 종류에 따라, 편찬 방식에 따라, 연구 방법에 따라, 구조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 연구 대상 자료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학습 사전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 할지라고 한국어교육과 관련이 없는 논문은 제외시켰다.²⁾ 2006년 4월까지 나온 학위논문 및 정기간행물 총 19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³⁾

1) 서상규 외(2006), 신원프라임. 이 사전은 ‘한국어세계화재단’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개발 사업’의 결과물이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연세대학교 서상규 교수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대학교 홍재성 교수의 책임 하에 보완 개편 작업을 거쳐 발간되었다.

2) 주로 외국 학습 사전의 현황을 소개하거나 비교하는 연구들이 제외되었다.

3. 한국어 학습 사전의 연구 영역 분류

한국어 학습 사전의 연구 영역은 사용 언어에 따라, 종류에 따라, 편찬 방식에 따라, 연구 방법에 따라, 구조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1 사용 언어에 따른 분류

사전은 그 사전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따라 단일어(monolingual) 사전과 다국어(multilingual) 사전으로 나뉜다. 단일어 사전은 표제어 항목들은 물론 그에 대한 설명도 같은 언어로 되어 있는 사전을 뜻하며, 다국어 사전은 표제어 항목에 대한 설명이 그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사전을 말한다. 강현화(2001a)의 반이중언어 사전, 정상근(2001a, 2001b)의 한일 이중언어 사전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는 단일어 사전을 대상으로 한다.

강현화(2001a)의 두말 사전 편찬(Bilingual Dictionaries)에서는 한국어 학습 사전의 새로운 모델로 반이중언어 사전(Semi-Bilingual Dictionary)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언어 사전은 모국어와 목표 언어의 1:1 관련 번역 자체가 불가능한 원론적인 문제가 있으며, 단일어 사전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이 되어야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반이중언어 사전(Semi-Bilingual Dictionary)이 제안되었다. 반이중언어사전은 기존의 이중언어 사전과 달리, 단일어 사전을 바탕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에 L1의 의미적 등가물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돋고 실제적인 활용을 기대하는 교량적 사전(bridge dictionary)이다. 표제어, 정의 및 예문은 목표 언

3) [부록] 참고. 학술대회 발표자료집은 논문(전문)이 실리고 전자검색이 되는 경 우만을 포함하였으며(강현화, 2001a), 연구비 지원 보고서는 제외하였다.

어로 기술하되, 학습자의 L1 번역을 정의 옆에 달아 줄 것을 주장하였다.

정상근(2001a, 2001b)의 학습용 한일사전에 관한 연구는 일본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학습용 한일사전”에서의 표제어 선정과 기술을 다루고 있다. 특히 용언 활용형의 등재 기준에 따라 용언 192개(동사 128개, 형용사 64개)를 10개의 고빈도 어미를 결합시켜 시안으로 제시하였다. 학습용 한일사전의 개발 방향을 용언이나 준말의 기본형을 몰랐을 때 어떻게 찾아가는가, 학습자들은 어떤 사전을 원하는가 등의 질문에 주목하여 설문 조사를 근간으로 표로 정리하였다.

3.2 종류에 따른 분류

사전은 종류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의 형태처럼 어휘, 문법, 발음, 문화, 방언, 관용구, 속담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 사전과 특정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류 사전으로 구분된다. 한국어 학습 사전에 대한 연구에서는 신현숙(1998)의 의미 사전, 배희임·강영(2001)의 문법 사전, 임승연(2002)의 다의어 사전 이외의 연구는 통합 사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현숙(1998)의 의미 사전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 관한 최초의 연구이다. 한국어 교육자와 한국어 학습자를 고려한 어휘 정보 구축과 구축한 어휘 정보를 담는 의미 사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어휘 항목을 선정, 분류, 기술하는 방법에 관해 논의하였다. 특히 어휘 항목의 분류에서는 우주, 자연, 날씨, 동물 등 40가지 항목을 나누어 한국어 교육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사전의 모형을 제시하였고⁴⁾ 이를 토대로 사전이 출판되었다.⁵⁾

배희임·강영(2001)의 문법 사전은 50개의 문법 항목 중에서,⁶⁾ '-아서/어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실제 수업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문법 학습 사전에서 이를 어떻게 기술한 것인지를 세 개의 구성 모델 즉 '-아서/어서의 시제 표현', '-아서/어서의 제약성', 문장 구성 형식에서의 제약'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법 학습 서를 집필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간 단계로 학습 사전을 설정하였다.

4) 신현숙(1998:93 중략)

<어휘 항목 분류>

우주	지구	{지구본/ 공전/ 자전/ 천지/ 천동설} 등
	해	{햇빛/ 햇볕/ 태양/ 일출/ 양력/ 양산} 등
	달	{달빛/ 달맞이/ 보름달/ 음력/ 월식} 등
	별	{별빛/ 행성/ 은하수/ 별자리/ 금성} 등
자연	구름	{먹구름/ 비구름/ 새털구름/ 끼다} 등
	안개	{밤안개/ 물안개/ 안개경보/ 겉히다} 등
	비	{빗방울/ 장마/ 이슬비/ 소나기} 등
	눈	{눈송이/ 힘박눈/ 눈사람/ 대설경보} 등
	바람	{산들바람/ 태풍/ 계절풍/ 풍향} 등
	그 밖의 현상	{천둥/ 번개/ 우박/ 서리/ 이슬/ 노을} 등
날씨	기후	{날씨/ 일기예보/ 삽한사온/ 환절기} 등
	온도	{더위/ 추위/ 온도계/ 체감온도} 등

5) 신현숙(2002),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사전」, 한국문화사

- 6) 50가지 문법 항목을 10개의 분류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배희임·강영, 2001:184-185). ①한국어 문장을 만드는 방법, ②한국어 조사를 선택하는 방법(-은/는, -이/가, -을/를, -와/과 등), ③한국어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아서/어서, -도록, -고, -(으)면서 등), ④한국어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방법(-아/어 주다, -아/어 지다, -아/어야 하다, -아/어 버리다 등), ⑤한국어 문장을 부정하는 방법(안, -지 않다, 못, -지 못하다), ⑥한국어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았/었-, 있었-(과거), -는-, -ㄴ-(현재), -(으)ㄹ 것이다(미래), -겠(추측), ⑦한국어에서 수식어를 만드는 방법(-는, -(으)ㄴ-, -(으)ㄹ), ⑧한국어 용언을 명사형으로 만드는 방법(-기, -(으)ㅁ), ⑨한국어 문형을 이해하는 방법(-(으)ㄹ수록, -아/어도), ⑩한국어로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주체존대/객체존대, 상대존대)

임승연(2002)의 다의어 사전은 한국어 다의어 사전 모형 개발을 위한 작업으로 1500개의 기초어휘목록(임지룡, 1991), 한국어교육 기초 어휘 의미빈도사전(서상규 외, 2000)과 설문 조사 등을 바탕으로 5개의 부사(곧, 꼭, 다, 바로 아주)를 선택하여 다의 개수를 선정하고 의미마다 급수를 부여한 후 이에 맞는 대화 위주의 예문을 넣어 사전 모형을 제시하였다.

3.3 편찬 방식에 따른 분류

사전은 편찬 방식에 따라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으로 분류된다. 종이사전은 기존의 종이 인쇄 방식의 사전을 의미하며, 전자사전은 컴퓨터와 다매체의 기술 방식에 힘입은 전자파일 형식의 사전을 뜻한다. 전자사전을 핵심 주제로 다룬 강현화(2001b)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는 종이사전에 대한 연구에 부가적으로 전자사전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강현화(2001b)의 전자사전에 대한 연구에서는 국외 전자사전의 연구 현황과 한국어 전자사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컴퓨터에서 제공되는 한국어 전자사전을 두 종류로 소개했는데, 하나는 한글과컴퓨터사에서 지원되는 ‘한글학회 사전’류의 오프라인(off line) 사전이고, 다른 하나는 웹상에서 제공되는 ‘야후 국어사전’ 류의 온라인(on line) 사전이다. 오프라인사전은 전자 수첩처럼 일정한 양의 메모리가 저장되어 있는 책의 인쇄 내용을 컴퓨터의 소형 메모리칩으로 대신한 것인데 반해, 온라인 사전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로 웹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전이다. 전자사전은 검색이 용이하며,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다중 매체를 사용하여 사람의 이해를 증대시키는 등의 효용성을 지닌다. 최근 웹상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이트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빈도 활용, 풍부한 용례, 용례에 대한

서지 정보와 품사 정보의 정교한 기술, 녹음된 발음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사전이 제대로 갖추고 있을 때 인쇄 사전보다 뛰어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4 연구 방법에 따른 분류

사전 연구의 특성상 민족지학적 연구 방법이나 실험 연구보다는 대부분이 문헌 조사에 기대고 있는 논문이 많았다. 단, 배희임·강영(2001)은 수업 결과를 분석한 방법을 사전 연구에 사용했으며, 박수연(2002, 2003)은 연상작용(association)에 관한 설문 조사를, 임승연(2002)은 다의어 인정 여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정상근(2001a, 2001b)은 용언이나 준말의 기본형을 몰랐을 때 어떻게 찾아가는지, 학습자들은 어떤 사전을 원하는지 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이나 설문 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사례연구(case study)⁷⁾를 실시한 경우가 있다. 한상미(2002)는 중급 학습자 1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전과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한 어휘 학습이 말하기와 쓰기에서 어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는 5명은 기준의 전통적인 어휘 학습 방법으로, 6명은 인터넷 사전을 이용하여 10주 동안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어휘 교수 방법의 한 예로서 인터넷 사전과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한 어휘 학습을 제안하고, 특히 이 방법이 쓰기와 말하기 같은 생산(production)

7) 사례연구란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이므로 그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면에서는 다소 약점이 있으나, 여타의 양적인 실험 연구 방법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특정 현상을 자세히 분석하여 기술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다(Nunan, 1992:79-81). 이 연구는 인터넷 사전의 사용과 인터넷 자료 검색 과정을 통한 학습이 단순히 어휘 학습에 효과적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효과적인가를 분석, 기술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했다(한상미, 2002:289).

활동에서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입증하였다.

3.5 사전의 구조에 따른 분류⁸⁾

사전은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이루고 있다. 사전의 거시구조는 크게 사전의 사용 대상, 표제어 수와 그 선정 및 배열 방법 및 어휘 통제,⁹⁾ 그리고 말뭉치를 다룬다. 즉 사전의 사용자가 모국어 화자인지 외국어인지, 그 대상이 초급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를 다루거나, 표제어는 어떤 단어로 몇 개를 선정하여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 단어의 뜻을 풀이하는 데에는 몇 개의 단어가 쓰여야 하는지, 또 어떤 말뭉치를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연구가 거시구조의 연구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 구체적으로 각 단어를 제시하는 방법과 관련된 사전의 미시구조는 발음, 활용, 용법, 화용, 관련어, 길잡이말, 참고 사항, 및 그림 자료와 부록 등의 분야를 다룬다.

대체로 사전의 거시구조를 주요하게 다루면서 미시구조를 간단히 언급한 연구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거시구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거시구조 연구로, 미시구조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은 미시구조 연구로 분류했다.

-
- 8) 사전의 구조에 따른 분류는 사전 ‘편찬’의 입장에서 사전 연구를 보는 관점이다. 사전의 ‘사용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이와 대조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한국어 학습 사전에 관한 연구 중에는 한상미(2002)를 제외하면 사전의 ‘사용 및 활용’을 다른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전 ‘편찬’과 관련된 기준을 상위 분류기준으로 제시하였다.
 - 9)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5th edition)에서는 3,500개 내외의 뜻풀 이용 어휘를 정해놓고, 단어를 정의하는 데 이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5.1 사전의 거시구조를 다룬 연구

사전의 거시구조에 관한 연구는 사용 대상, 표제어, 말뭉치로 나뉜다. 사용 대상만을 다룬 연구는 없었고 보통 다른 주제에 덧붙여져 논의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표제어와 말뭉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제어의 종류에는 주표제어, 부표제어, 가표제어가 있다. 주표제어는 사전에 등재되는 언어 단위를 말한다. 부표제어에는 어휘 결합, 호응 관계, 연어, 속담 등 어떻게 어울려 쓰이는지를 따로 가르쳐야 하는 언어 단위들이 포함된다. 가표제어는 학습자의 직관과 표제어가 상의할 때, 학습자의 직관에 맞추어 만든 가상의 표제어이다. 다시 말해 가표제어란 의미나 내용 기술 없이 본표제어로 안내하는 길잡이적인 표제어를 말한다.

말뭉치는 연구 대상이 되는 언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집합이다. 학습 사전과 관련된 말뭉치는 표준적인 한국어 사용을 보여주는 말뭉치(교재, 부교재, 교안 등)와 학습자들이 만드는 오류 말뭉치(학습자의 작문, 발화 등)로 구성된다. 전자는 주로 표제어 선정 연구와 관련이 있고, 후자는 참고상자나 문법 정보 연구와 연관이 있다.

3.5.1.1 표제어

학습 사전의 표제어를 다룬 논문에는 강현화(2000b, 2001a), 김미현(2005), 배희임·강영(2001), 신현숙(1998), 정상근(2001a, 2001b), 임승연(2002)이 있다.

강현화(2000b)의 표제어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을 위한 교육용 한

44 이중언어학 제31호(2006)

국어 사전의 표제어에 대해 논하고 있다. 표제어의 수적·내용적 선정 범위, 등재 순서, 선정 방법 등을 살피고 표제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표제어의 형태적 경계 문제나 품사 통용어¹⁰⁾의 기술, 구(句) 표제어, 부표제어 기술 문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표제어 선정에 있어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건들과 관련된 어휘, 명사구, 준꼴과 약어, 관용표현, 신문이나 방송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용어들도 분석하여 사전에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현화(2003)의 가표제어 선정에 관한 논의에서는 불규칙 활용형과 축약형, 구어, 준말, 이형태, 상응어구 등을 학습 사전의 가표제어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별히 불규칙 활용형의 가표제어를 ‘-아, -았다’의 활용형 군(1군), ‘-는/ㄴ’의 활용형 군(2군), ‘-(으)니, -(으)르, -(으)면’의 활용형 군(3군)으로 나누어 기술한 뒤, 해당 용언의 활용형임을 풀이하고 해당 용언의 표제어 항목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¹¹⁾

배주채(2001)의 한국어사전의 방향은 사전의 유형과 사용언어, 규범과 현실, 거시구조 및 미시구조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거시구조에서는 표제어의 통합과 분할에 대한 기준(학습 사전에서는 통합 방식 선호), 표제어의 배열 방식, 표제어의 중요도 표시를 설명하고, 미시구조에서는 발음, 뜻풀이, 용례, 및 관련어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정화(2001)의 한국어 학습자 사전 개발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사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존의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학습 사전의

10) 품사통용어란 한 어휘가 두 개 이상의 품사를 갖는 경우를 뜻한다. 크다(동사/형용사), 지금(명사/부사), 문화적(명사/관형사), 아니(부사/감탄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1) 강현화(2003:165)

- a. 가까우-(가까운, 가까우니까, 가까울, 가까우면)
 가까워-(가까워, 가까웠다)
- b. 가늘어(가늘어, 가늘었다)
 가느(가는, 가느니, 가늘, 가늘면)

- 가깝다
- 가깝다
- 가늘다
- 가늘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표제항의 선정 및 뜻풀이의 정교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전 이용자를 고려한 단어 배열 등 사용자 중심의 사전이 되어야 함을 편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미현(2005)의 연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 사전이 실용적이며 교육적인 목적에 도달하려면 정확하고 표현력 있는 연어(collocation)를 엄선, 체계적으로 기술해 주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어를 이론적으로 접근한 연구보다는 연어를 사전에 등재하는 문제와 관련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살펴보았으며 연어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며 학습 사전에서 다루어야 하는 연어는 모국어 교육 위한 사전에서 요구하는 연어보다 광범위함을 밝혔다. 또한 단일어 사전과 이중언어 사전, 능동·작문 사전과 수동·해석 사전에 따라 연어의 기능이 달음을 언급하였다. 연어 선정의 기준, 부수적인 연어 선정 기준, 실용적인 판정 기준을 밝히고 연어 항목의 제시 방법 및 위치를 연어의 통사적 유형(체언+용언, 체언(의)+체언, 부사+용언)에 따라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사전에서의 실제 예를 보였다.

3.5.1.2 말뭉치

한국어 학습 사전과 관련된 말뭉치를 다룬 논문에는 강현화(2000a, 2001b), 한영균(2001)이 있다.

강현화(2000a)의 한국어사전과 말뭉치를 다룬 연구에서는 종래의 이중언어 사전의 문제점을 대상, 표제어 선정 방식, 의미풀이, 용법 설명, 응용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면서 말뭉치 연구와 한국어 사전, 한국어사전과 문법정보에 관해 폭넓게 논하고 있다. 표제어 선정시, 지명, 인명, 기초 어휘 선정시 출현 빈도, 교수 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어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말(구어), 학습자의 오류 외에, 문법 정보 중에서 특히 동사에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여, 불

규칙 동사의 활용형도 빈도가 높은 것은 가표제어로 올려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 있는 말뭉치의 구축과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기술된 한국어사전의 편찬이 시급한 당면 과제임을 주장하였다.

한영균(2001)의 어휘 계량적 접근에서는 말뭉치에서 얻어낼 수 있는 빈도 정보의 유형을 어절 빈도, 갈래뜻 빈도, 의미장 빈도, 단어족 빈도¹²⁾로 정리하였다. 또한 학습자 사전의 유형을 표현 사전과 이해 사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거시구조의 차이와 어절 빈도의 활용을 다루었다.

3.5.2 사전의 미시구조를 다룬 연구

사전의 미시구조에 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각 단어를 제시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으로, 발음, 활용, 용법, 화용, 관련어, 길잡이말, 참고 사항, 및 그림 자료와 부록 등의 분야를 다룬다. 사전의 미시구조를 연구한 논문으로 김홍범(2002), 남길임(2006), 박수연(2002, 2003)을 들 수 있다.

김홍범(2002)의 미시 정보 구성을 다룬 연구에서는 사전의 미시구조 중에서, 특별히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사전과 특별히 변별될 수 있는 정보로 ‘관련 어휘 정보’와 ‘학습 참고 정보’를 강조하였다. ‘관련 어휘 정보’에는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준말/본디말, 큰말/작은말 정보 등이 있으며, 특히 유의어 정보에 무게를 두었으며, ‘학습 참고 정보’로 ‘【어떻게 다를까요?】’¹³⁾라는 난을 만들어 학습

12) 같은 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미적으로도 서로 관련이 있는 일련의 단어들의 집합을 단어족(word family: 單語族)이라 한다. 예를 들어 ‘문화’라는 단어와 ‘전통 문화, 고급 문화’는 하나의 단어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어족 빈도란 기본적으로 동일 어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파생어·합성어의 빈도의 총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한영균, 2001:76).

자 위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사전과 기존의 국어사전을 변별하고자 했다.

남길임(2006)의 시간 표현 제시방법을 다룬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단일어 학습 사전에서의 기본 어휘 기술 방법론을 한국어의 ‘시간 명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어 학습자 오류 말뭉치와 한국어 교재 말뭉치를 토대로, ‘년, 월, 일, 해, 달, 주, 계절(봄/여름/가을/겨울)’류의 ‘시간 명사’들의 어휘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 정보를 ‘참고상자(usage note)’를 활용하여 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⁴⁾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나타내는 명사가 ‘-이 오다/가다/되다/이다’와 결합한다든지, ‘지난/이번/내년’과 명사구를 구성한다든지 하

- 13) 【어떻게 다를까요?】 ‘온통’은 ‘흙탕물을 온통 뒤집어 썼어요’와 같이 ‘빈 공간’을 채우는 데 쓰이기 때문에 공간과 관련이 없는 ‘밥을 온통 먹었어요(X)’와 같은 경우는 ‘온통’ 대신에 ‘다’,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김홍범 2002:116).

- 14) 남길임(2006:145)

[‘월’과 관련된 표현]

- ‘일월, 이월, 삼월 …’은 ‘되다/오다, 가다/지나가다’ 등의 동사와 함께 쓰이며, 말할 때에는 ‘일월 달, 이월 달, 삼월 달…’로 쓰기도 한다.
예) 어느덧 꽃피는 사월이 가고, 오월이 왔습니다.
예) {사월/사월 달}에 만나기로 해요.

- 각 월에서의 시기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4월 1일-10일	4월 11일-20일	4월 21일-30일
사월 초순	사월 중순	사월 하순
사월 초		사월 말
사월 중		

- 예) 가: 사월 중에 시험이 있어요?
나: 네, 시험은 주로 사월 중순에 있어요.

- 올해의 사월: {올해/올} 사월
다음 해의 사월: 내년 사월
지난해의 사월: {지난해/작년} 사월
예) 저는 내년 4월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는 어휘 통합 관계와 시간을 묻거나 약속을 정할 때의 표현 단위 및 시간 명사의 계열 관계 정보를 기술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박수연(2002, 2003)의 ‘길잡이말(Guide Words)’ 연구는 길잡이말¹⁵⁾을 사용하여 편찬된 사전을 중심으로 길잡이말의 유형 및 어휘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수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문화 어휘를 포함한 몇 가지 단어에 대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낱말 연상(word association)실험을 실시하여 한국어 학습사전에서의 길잡이말의 사용 원칙을 제시하였다.

- 15) 길잡이말이란 소리와 형태가 같은 말이 여러 개 있을 때 찾고자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 특징을 표제어 옆에 부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전 사용자가 동물인 ‘말’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 동영어 중에서 동물 ‘말’과 관련된 것을 찾으려면, 사전의 뜻풀이까지 다 읽어야 한다. 그러나 동영어 ‘말’에 【언어】, 【동물】, 【그릇】, 【놀이】, 【끝】과 같은 길잡이말을 달아주면 일일이 읽지 않고도 원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박수연, 2002:4-7).

***말**【언어】[말:] ①무슨 뜻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사람의 목소리, 또는 그것을 들은 글자. 예스이는 아무 말 없이 서 있다. ②아이거나 대화. 예스이 근처에는 호랑이가 나온다는 말도 있어. ❶말씀. ❷글. 말하다.

말을 끌다【말】 (누구에게) 반말로 이야기하다. 예우리는 친구처럼 서로 말을 끌기로 했다.

말 흰마디에 천 낭 빛을 갖는다【속임】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

***말**【동물】 목과 다리가 길고 목에는 갈기가 달았으며 모리에 긴 털이 나 있고, 사람이 타거나 짐을 운반하는데 쓰이는 큰 짐승. ◉horse.

말【그릇】 ①곡식이나 액체의 분량을 재는 네 쓰는, 둥근 기둥 모양의 큰 나무로 만든 그릇. ②(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써서) 곡식이나 액체 등의 분량을 재는 말. 되의 옆 때.

***말**【여】 ①‘마(馬)’자가 새겨진 장기 짜. ②윷을 놀 때, 판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옮기는 작은 물건. 대개 내 개가 있다. 예우만 나오면 상대편 말 하나를 잡을 수 있어.

***말**【末】 ‘어떤 기간의 끝, 끝 무렵’의 뜻을 나타낸다. 離이말 끝. 離초.

<『연세초등국어사전』 표제어 ‘말’>

4. 결론

한국어 학습 사전에 대한 연구는 신현숙(1998)을 시작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9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로, 한국어 학습 사전의 연구 동향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 사전에 대한 연구는 몇 편의 논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단일어 통합 사전 형태를 띤 종이사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간혹 설문 조사나 사례연구를 취한 연구가 있으나 대체로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사전을 치중하는 용어 및 띠어쓰기가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다. ‘학습 사전’, ‘학습사전’, ‘학습자 사전’, ‘학습자사전’, ‘학습용 사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용어와 띠어쓰기가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 개발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만을 언급할 뿐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가 대부분이다. 사전 편찬에 대해 매우 총체적으로 다룬 나머지 실제 그것이 출판될 때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가 있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지면의 부족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현실적인 결과물로 내놓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연구가 많았다.

셋째, 사전의 거시구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된 반면, 미시구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표제어의 선정 및 배열 방식이나 말뭉치에 대한 연구는 꽤 다루어졌으나 사전의 미시구조만을 다룬 논문은 김홍범(2002), 박수연(2002, 2003)밖에 없다.¹⁶⁾ 발음, 용례, 뜻풀이, 관련어, 화용 정보, 참고 사항 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

16) 남길임(2006)은 거시구조의 측면에서 말뭉치를 토대로 어휘 기술 방법론도 함께 다루고 있으므로 미시구조만을 다룬 것은 아니다.

흡하다고 볼 수 있다. 학습 사전의 핵심인 섬세함과 친절함임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정상근(2001a:46-48)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눈:]보다 [누:ㄴ]이라는 발음 표시 방법을 선호한다고 했다. 관련어 또한 단순히 유의어로 제시하고 그치는 것이 쓰임 면에서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¹⁷⁾ 용례의 형태¹⁸⁾ 및 몇 어절의 예문이 학습자에게 무리가 없는지 등에 관한 연구가 후행되어야 한다. 미시구조의 각 항목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이제까지의 연구는 거의가 사전편찬자 중심의 연구였다. 사전을 편찬하려면 표제어는 편찬자의 직관에 의존하기보다는 말뭉치에 근거해야 하며, 초급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의 경우 보통 5,000개에서 10,000개의 어휘를 선정하여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여야 한다는 종류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사전은 사용자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결과물이다. 사전사용자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 학습자들이 어떤 사전을 필요로 하는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사전에 대한 요구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정상근(2001a, 2000b)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조사도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획득하려면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편찬자 중심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여, 기존의 연구는 사전의 편찬에 관한 것이었다. 사전 사용 및 활용에 관한 연구는 거의

17) ‘영’(0)과 ‘공’(0)을 예로 들면,

점수를 말할 때, (예) 0점: 영점(0)/공점(x)

숫자를 읽을 때, (예) 0.1: 영점 일(0)/공점 일(x)

전화번호를 읽을 때, (예) 780-8079 칠팔공에 팔공칠구, ?칠팔영에 팔영칠구

18) 문장 중심으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나 대화 위주의 용례도 필요하다.

가방: 서류 가방, 여행 가방(명사구 단위)

가방을 들다, 가방을 메다(동사구 단위)

가방을 읽어버렸습니다./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렸어요.(문장단위)

풀다: a: 담배는 어디에서 사요? b: 슈퍼에서 팔아요.(대화단위)

전무하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사전 사용이 어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한상미(2002)의 연구는 더욱 값지다고 하겠다. 교실에서 사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전은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 이중언어 사전과 단일어 사전 중 어떤 사전이 더 도움이 되는가 등의 실험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전은 학계의 연구 성과물인 동시에 상품이므로 사용자(소비자)의 입장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에 대한 배려는 곧 상품의 시장 점유율과 직결되며 교육효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에서 용어의 통일성이 없다는 점, 모형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가 많고, 거시구조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미시구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점, 사전사용자 중심의 연구보다는 사전편찬자 중심으로 연구가 편중되어 있다는 점, 사전 사용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까지 통합적으로 출판된 한국어 학습 사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을 위한 종합적인 사전이 출판되지 않았으니 용어를 정하기가 어렵고 모방이나 비판할 예가 없으니 모형을 제시하기가 힘들었다. 대략적인 거시구조는 제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미시구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논의해야 할지가 애매하고 사전을 가지고 실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용자 중심의 연구는 더더욱 수행하기가 불가능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이 단일어 사전, 이중언어 사전 등으로 다양하게 출판되어야 한다. 물론 출판이 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물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며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나올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이 출판되었다. 5년간의 편찬 기간을 거친 끝에 나온 결실인 만큼 이를 모방하고 비판하여, 학습 사전에 대한 풍부한 연구가 후행되고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 사전이 편찬되길 기대한다.

<참고 문헌>

강승혜(2003).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1, 1~27.

<사전류>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서상규 외(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임.

신현숙 외(2000).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사전」, 한국문화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편(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편(2002). 「연세초등국어사전」, 두산동아.

부록

한국어 학습 사전 관련 논문

강현화(2000a).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사전과 말뭉치.” 「응용언어학」 제16권 1호, pp.99~117, 한국응용언어학회.

_____(2000b). “외국인을 위한 교육용 한국어 사전의 표제어에 대한 고찰.” 「어문학」 70, 1-21, 한국어문학회.

_____(2001a). “두말 사전 편찬(Bilingual Dictionaries): 한국어 학습용 이중어사전 역할에 대한 논의 -반이중어사전(semi-bilingual dictionary)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제2차 아시아 사전학회 국제 학술대회, 1-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원구원.

_____(2001b). “컴퓨터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전자사전과 한국어교육.” 「한국어 정보학회」 제3집, 1-12, 국어정보학회

_____(2003). “한국어학습사전의 가표제어 선정에 관한 논의.”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제12·13합집, 157-179,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김미현(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에서의 연여 연구.” 「한국사전학」 제6호, 173-196, 한국사전학회.

김홍범(2002). “『한국어 학습 사전』 편찬의 실제: 미시 정보 구성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제10권, 101-118,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남길임(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서의 어휘 기술 방법론 연구: 시간 표현을 중심으로.” 「한글」 271, 133-160, 한글 학회.

- 박수연(2002). “한국어 학습사전에서 동음이의어 구별을 위한 ‘길잡이말(Guide Words)’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에서 동음이의어 구별에 관한 연구: 길잡이말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9집, 71-110,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배주채(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사전의 방향”, 「성심어문논집」 제23권, 39-67,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배희임 · 강영(2001). “외국인의 학습과정을 고려한 ‘한국어문법 학습사전’ 집필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 제18권, 165-189, 이중언어학회.
- 신현숙(1998). “한국어 어휘교육과 의미 사전.” 「한국어교육」 제9권 2호, 85-10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정화(2001). “한국어 학습자 사전 개발을 위한 몇 가지 검토: 한국어 교재와 기존 사전 검토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19집, 275-294, 이화여문학회.
- 임승연(200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다의어 사전 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상근(2001a). “한국어 학습사전에서 용언활용형의 표제어 선정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제12권 2호, 201-2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1b).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습용 한일사전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미(2002). “학습자 자율성에 기초한 한국어 어휘 교육 사례 연구.” 「한국어 교육」 제13권 2호, 279-30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영균(2001). “한국어 학습자 사전 개발을 위한 어휘 계량적 접근.” 「울산어문 논집」 제15집, 65-94, 울산대학교 국어국문과.

박수연(Park Sooyeon)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위당관 516호)

전화: 02-2123-4048

전자우편: psy780@hotmail.com, psy780@lex.yonsei.ac.kr

접수일자 : 2006. 04. 21.

제재결정 : 2006. 06. 15.